

기질이 형제관계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을 대상으로

박 혜 원 김 은 지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 학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형제관계와 또래관계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기질이 형제관계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참여 학생은 형제가 1명인 초등학교 6학년(213명), 중학교 2학년(192명), 고등학교 2학년(229명)으로 형제관계 검사, 선행연구를 참조로 제작한 또래관계측정검사, 그리고 기질측정검사(EASI: 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 impulsivity)를 받았다. 각 검사의 측정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는 형제관계검사의 경우 .67, 또래관계검사의 경우 .77, 그리고 기질검사의 경우 .72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 성별, 그리고 출생순위 및 연령터울에 따라 청소년의 기질, 형제관계 그리고 또래관계의 특성을 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기질, 형제관계 그리고 또래관계간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검사수행 을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차원으로 정리하여 각 차원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형제관계와 또래관계각각에 대해 기질, 성별 및 형제지위변인, 그리고 또래관계(또는 형제관계)의 각 차원별 점수를 넣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상대적인 영향을 비교한 결과 기질이 두 사회적 관계모두에 가장 중요한 요 인임이 밝혀졌다. 무엇보다도 기질은 형제관계보다 또래관계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관계가 형제관계에 비해 비록 발달과정상 더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선천적인 기질을 지닌 기질의 영향이 더 욱 분명한 것은 형제관계에는 부모의 관여에 의한 중재가 관여하지만 또래관계에는 오히려 부모의 관여와 별도로 아동이 동등한 사회관계속에서 기질의 영향이 잘 반영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에서 2명 이상의 형제를 둔 아동의 역동적 형제관계와 또래관계간의 상관과 이에 미치는 기질의 영향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결과와 일반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청소년의 기질 · 형제관계 · 또래관계

기질과 사회성에 관한 연구에서 기질과 또래관계내 사회측정 지위나 능력과의 관계(정은숙, 1984; 권희영, 1993a, b) 그리고 기질에 따른 사회적 상황에서의 적응도 등을 살펴본 연구(민영선, 1991; 원영미,

1989)에서와 같이 가정 밖에서 형성하는 사회성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형제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밝힌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형제관계자체에 대한 연구가 출생순위에 따른 분석외에는 최근까지도 비교적 소홀히 되어져 온 사실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그러나 형제관계는 부모 자녀관계라는 위계적인 관계로부터 일반적으로 동등한 사회적 관계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의사소통유형, 경쟁, 협동 그리고 타협하는 방식등을 학습하게 하는 중요한 관계망이다(Baskett, & Johnson, 1982). 특히 최근에는 형제관계에 있어서의 경쟁, 갈등(Sibling rivalry)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나이트 형제가 어린 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시키게 되는 지도력이나 동생이 손위 형제로부터 받게되는 지적인 자극의 영향과 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Berndt, Bullett, 1985; Knight, 1982; Samuels, 1980; Stewart, 1983).

우리나라에서는 형제관계에 대한 연구가 유아기와 아동초기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김상희, 1982, 1989; 김양순, 1973; 최주영, 1976; 한미현, 1989). 그러나 형제관계와 또래관계가 부모 자녀관계만큼이나 중요하고 안정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 아동후기부터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어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질이 가족내에서 형성하는 형제관계와 비가족원과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아동후기에서 청소년기사이의 기질, 형제관계및 또래관계의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질은 아동발달과 발달심리, 성격심리, 임상병리, 행동유전학 그리고 교육학(Allport, 1961; Bates, 1989; Buss & Plomin, 1975; Rothbart, 1986)등 많은 분야로부터 연구되어졌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현대적 기질연구의 활력소를 불어넣은 Thomas와 Chess(1977)는 기질을 행동방식(the how of behavior)으로 개념화하였고, 개체가 같은 동기와 능력을 가졌어도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정서표현을 하는 가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기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9개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활동수준(activity level), 규칙성(rhythmicity), 적응성

(adaptability), 접근-회피성(approach-withdrawal), 정서성(mood), 지구성(persistence), 주의분산성(distractability), 그리고 예민성(threshold)등 9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개념적으로 통합된 기질의 정의 체계를 제공한 사람은 Derryberry와 Rothbart(1984)로 기질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중요한 심리학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들은 기질이란 행동적인 면에서 정서성, 활동성, 그리고 집중력에서 보이는 개인차로써 모든 연령에게 관찰될 수 있고, 현상학적 면에서 기질은 에너지, 관심(interest) 그리고 애정(affect)의 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연구자에 따라 기질이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기질과 성격의 개념 및 그 범주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질의 구성요소로 활동수준과 정서성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다른 요소들에서는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이와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질이 항상성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기질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아동의 행동에 예언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기질과 사회적 능력 그리고 행동장애나 문제 행동을 일으킬 위험도 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Lamb, et al, 1988; Adler & Furman, 1988; 정은숙, 1984; 천희영, 1993a).

국내의 기질에 관한 연구는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조화적합성이론을 중심으로 아동기이후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김말경, 1996; 김정민, 1993). 형제관계와 또래관계속에서 그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이 선천적인 특성이 행동에 미치는 역동적인 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의 형제간과 또래간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유사점과 차이점의 양면을 모두 내포한다(Parke & Ladd, 1992). 형제간은 또래간보다 더 유사하고 친숙하며 강한 신뢰감을 갖고 상호간의 이해를 갖기 때문에 형제간의 강한 친밀감은 아동이 형제에게 일찍부터 이타주의를 갖게 하며 이것이 복잡한 놀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형제관계와 또래관계는 각각에서 갖게 되는 역할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즉 형제간보다 또래간은 동등한 연령이거나 능력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평등적인 역할을 나타낸 반면, 형제간은 손윗형제는 연령이 많으므로 독단적이 될 기회를 갖고 있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에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연령구성에 따라 비슷한 연령의 또래와 비교할 때 연령에서 차이가 나는 또래관계는 형제관계와 비슷하다. 즉 연령구성 자체보다도 파트너의 나이와 더 연관되어 아동의 사회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Rubin & Ross, 1982). 연령구성에 따른 역할은 비슷하여 나이가 많은 아동이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지시하며, 나이가 어린 아동이 윗형제와 나이가 많은 또래친구 양자모두에게 모방을 많이 나타낸다(Brody, Stoneman & Mackinnon, 1982; Brody, et al, 1985).

형제관계나 또래관계는 연령구성외에도 성별 구성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남이는 공격적인 반면 여아는 협동적이고 중립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 그러나 아동이 형제와 또래간에서 상호작용을 나타낼 때에는 아동의 성보다도 놀이친구의 성과 관련된 성구성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Dunn과 Kendrick(1981)은 형제간과 마찬가지로 또래간에서도 성구성의 차이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서 혼성간보다 동성간에서 긍정적인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동성간에는 유사성의 지각으로 아동이 동성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흥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구성에 따른 형제간의 상호작용이 또래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Abramovitch, Corter, Pepler, & Stanhope, 1986) 이러한 불일치하는 결과는 형제는 또래와 달리 자신이 놀이대상으로 형제를 선택할 수 없으며 자신의 지위에 부합되는 관계를 유지하여야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Rubin & Ross, 1982).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형제에 대한 사회성과 또래에 대한 사회성간의 상관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며 하위 차원에 따라 상관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형제의 연령, 성별구

성 그리고 연령터울등 많은 중재변인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질, 형제관계, 또래관계를 이러한 중재변인에 따라 비교하며 이 중재변인들과 대비하였을 때 기질이 두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으로 형제 1명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가족 출산력을 조사한 결과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또한 형제관계는 2명 이상의 형제가 있을 경우 각 형제에 따라

표 1. 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집 단	연 령	빈 도
연 령	11세	213(33.6)
	13세	192(30.3)
	16세	229(36.1)
	계	634(100.0)
성 별	남 자	346(54.6)
	여 자	288(45.4)
	계	634(100.0)
출생순위	장 자 녀	375(56.3)
	차 자 녀	275(43.4)
	무 응 답	2(.3)
	계	634(100.0)
형 제 간 성별구성	남아-남아	196(30.9)
	남아-여아	149(23.5)
	여아-남아	195(30.8)
	여아-여아	92(14.5)
	무 응 답	2(.3)
	계	634(100.0)
형 제 간 연령터울	1년	98(15.5)
	2년	286(45.2)
	3-4년	152(24.0)
	5년 이상	88(15.3)
	계	634(100.0)

달라질 수 있어 형제수가 1명인 경우만 제한하였다.

이들 청소년은 울산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개교에서 선정하였다. 질문지 980부를 배포하여 형제가 2명이상으로 기재된 질문지와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최종 634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의 기질, 형제관계, 또래관계 조사는 다음과 같다.

1. 기질 측정

청소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와 Plomin(1975,1986)의 EASI(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 impulsivity)를 유명희(1990)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EASI는 정서성 15문항, 활동성 10문항, 사회성 9문항, 충동성 15문항으로 총 49 문항이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합치도를 반영하는 Cronbach's alpha로 알아본 결과 .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위 차원별 신뢰도는 정서성(.77), 충동성(.75), 사회성(.60)과 활동성(.51)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형제관계척도

청소년의 형제관계는 Daniels와 Plomin(1985)의 SIDE(Sibling Inventory of Differential Experience)를 기초로 한미현(1989)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형으로 요인분석 결과, 온정/친밀감, 경쟁심, 부모의 편애, 갈등, 보호심, 형제와의 동료의식, 형제에 대한 친사회성의 7개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척도 전체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67이며 각 하위 차원별로는 온정/친밀감은 .85(6문항), 경쟁심 .79(5문항), 부모의 편애 .75(6문항), 갈등 .79(4문항), 보

호심 .68(3문항), 형제와의 동료의식 .66(3문항), 형제에 대한 친사회성 .69(4문항)의 분포를 나타냈다.

3. 또래관계척도

또래관계척도는 민영선(1991)이 사용한 차원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23문항의 5점 리커트척도로 요인분석 결과 또래관계간 지도성, 경쟁심, 학교에서의 유능성, 적대감, 유능성, 교사에 대한 애정을 측정하는 6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교사에 대한 애정은 또래관계는 아니지만 청소년기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선행연구에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척도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77이며 각 하위 차원별로는 지도성 .71(5문항), 경쟁심 .72(4문항), 학교에서의 유능성 .60(4문항), 적대감 .59(4문항), 자신감 .67(3문항), 교사에 대한 애정 .64(3문항)의 신뢰도를 보였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조사는 미리 연구목적과 실시방법을 익힌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실시되었으며 3가지 검사를 모두 실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5분이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X Package를 사용하여 요인분석, 변량분석, Scheffe 검증, 상관분석, 그리고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결 과

청소년의 연령, 성, 형제자매구조에 따라 기질, 형제관계 그리고 또래관계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 다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추후 평균비교를 위해서는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지면상 통계검증치는 표에만 제시하였고 본문에서는 생략하였다. 기질, 형제관계 그리고 또래관계로 나누어 그 집단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령,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청소년의 기질

기질의 분석에 있어서는 성별, 연령, 출생순위의 주 효과만을 살펴보고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는 보고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기질은 연령에 따라서는 정서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청소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두려움이나 분노의 불쾌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 기질 차원은 정서성과 활동성에서였다. 정서성 차원에서는 여아의 평균점수가 남아의 평균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활동성 차원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남아는 여아보다 좀 더 활동적이고, 여아는 남아보다 두려움이나 분노에 대한 불쾌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출생순위에 따라 기질이 차이를 보인 차원은 사회성과 충동성에서였다. 사회성, 충동성 모두 장자녀보다 차자녀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장자녀보다 차자녀가 타인과 활동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대화에 더 주도적이고, 지구력이 부족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출생순위에 따른 청소년의 기질

기질차원	장 자 녀 평균(SD)	차 자 녀 평균(SD)	t 값
1.정서성	42.48(7.72)	41.94(7.53)	.84
2.활동성	32.58(4.48)	32.64(4.42)	-.16
3.사회성	30.96(4.52)	32.01(4.46)	-2.87**
4.충동성	41.76(7.11)	44.23(7.37)	-4.17***

** $p < .01$ *** $p < .001$

2. 연령, 성별 및 형제자매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형제관계

형제관계를 7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원을 연령, 성별, 형제자매구조(출생순위, 형제간 성별구성, 형제간 연령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5원($3 \times 2 \times 2 \times 4 \times 4$) 변량 분석을 하였다

(표 1 참조), 이때 독립변인들의 2원 상호작용까지만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만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형제간 친사회성차원은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

표 3. 연령, 성별, 형제자매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형제관계 변량분석

형제관계차원	자유도	평균 자 승	F 비
온정/친밀감			
성별구성	3	204.40	8.13***
경쟁심			
출생순위	1	219.46	12.21**
형제간 성별구성	3	121.46	6.36***
연령	2	403.60	22.10***
출생순위×성별	1	200.46	10.52**
성 별×연령	2	58.10	3.19*
부모의 편애			
성 별	1	150.56	5.70*
연령	2	283.73	11.01***
출생순위×성별구성	3	88.87	3.40*
갈 등			
형제간 성별구성	3	42.34	3.42*
형제간 연령차	3	49.15	4.07**
연령	2	135.62	11.27***
출생순위×성별	1	65.70	5.33**
보 호 심			
출생순위	1	375.32	60.09***
성별	1	45.13	6.56*
출생순위×성별구성	3	17.57	2.79*
출생순위×연령차	3	18.87	3.03*
출생순위×연령	3	25.99	4.16*
성 별×성별구성	2	124.73	19.23***
형제간 동료의식			
출생순위×성별구성	3	16.43	2.70*
출생순위×연령차	3	20.71	3.40*
출생순위×연령	2	24.70	3.99*
성 별×연령	2	21.26	3.52*

* $p < .05$ ** $p < .01$ *** $p < .001$

형제간 온정/친밀감은 형제간 성별구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그외 다른 형제자매구조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온정/친밀감은 4가지 성별구성 형태중 자매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형제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Bowerman과 Dobash(1974), Whiting (1975), 김상희(1982) 등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형제간 경쟁심은 출생순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의 성별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자녀보다 차자녀가 형제간 경쟁심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과 상호작용을 하여 남아인 경우 특히 차자녀가 경쟁심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자녀가 장자녀에 대해 열등감을 갖게 되어 질투와 경쟁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김정희(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경쟁심은 형제간 성별구성, 연령의 주효과가 있었으며, 연령은 성별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간 성별구성에 따른 형제간 경쟁심은 동성의 남형제인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윗형제가 여아이고 아랫형제가 남아인 경우였다. 형제간 경쟁심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장 높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경쟁심이 줄어들며, 연령과 성별간에 상호작용도 나타나어 특히 남아인 경우 연령이 올라갈수록 경쟁심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아의 경우는 형제간 경쟁심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이에 급격히 낮아졌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편애는 연령, 성별 그리고 출생순위와 성별구성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편애를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이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편애를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편애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여아는 남아보다 형제와 비교해 부모의 편애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에 의하여, 부모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줌으로써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편애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편애는 장자녀의 경우 자매(여/여)로 구성되었을 때 가장 많이 느꼈으며, 차자녀는 형제구성(남/남)인 경우에 부모의 편애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자매간이면서 차자녀에게 보다 온정적, 보호적, 관여적으로 행동한다는 Bryant와 Crockenberg(1980)의 연구결과처럼, 부모는 차자녀에 대한 보호적인 행동으로

인해 자매간이면서 장녀인 경우 부모의 편애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형제간 갈등은 형제간 성별구성, 형제간 연령터울, 연령에 따라서 주효과가 있었고, 또한 출생순위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간에 느끼는 갈등은 초등학교 6학년때 가장 많이 느끼며, 고등학교 2학년때 갈등을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간 성별구성형태에 따라서 청소년의 형제간 갈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형제간 갈등은 동성의 자매간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윗형제가 누나이고 아랫형제가 남동생일 경우였는데, 주로 윗형제가 여아일 경우 형제간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간 갈등에 대한 연령터울의 주효과는 형제간 연령터울이 2년일 때 형제간 갈등을 많이 느끼며 형제간 연령터울이 5년이상일 때는 갈등을 가장 적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순위와 성별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도 달라져서 남아의 경우는 차자녀일 때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여아의 경우는 장자녀일 때 형제간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다.

형제간 보호심은 출생순위, 성별의 주효과를 보였다. 또한 청소년의 형제간 보호심은 출생순위와 성별구성, 출생순위와 연령터울, 출생순위와 연령, 청소년의 성별과 형제간 성별구성형태의 상호작용 효과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간 보호심에 대한 출생순위의 주효과는 차자녀보다 장자녀가 형제를 좀 더 보호적으로 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자녀가 동생들을 보살피고 어린 부모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한 Abramovitch et al. (1979), Brody et al. (1985), Lamb(1978)과 한미현(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출생순위와 성별구성에 따른 상호작용에 있어서 형제간 보호심의 장자녀인 경우에 여아/남아로 성별구성을 가졌을 때 가장 높았고, 차자녀인 경우에 자매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형제간 보호심이 출생순위와 형제간 연령터울의 상호작용을 보여, 장자녀인 경우에 연령터울이 5년 이상일 때, 보호심이 가장 높은 반면, 차자녀인 경우에

연령터울이 1년일 때, 형제간 보호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호심은 출생순위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장자녀의 경우 중학교 2학년일 때 형제에 대한 보호심이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 고등학교 2학년일 때는 다소 감소하였다. 차자녀의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보호심이 계속 증가하여, 고등학교 2학년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호심은 성별에 따라 주효과가 있어 남아보다 여아가 보호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형제자매에 대해 온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Abramovitch와 그의 동료(1979, 1982), Cicirelli (1972, 1973, 1985), Dunn과 Kendrick (1982), 그리고 한미현(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성별과 형제간 성별구성의 상호작용 효과도 있어 남아인 경우 아랫 형제가 여아일 때 보호심이 가장 높았으며, 여아인 경우 아랫 형제가 남아인 경우 보호심이 가장 높았다.

형제간 동료의식은 장자녀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남동생을 가진 경우(여아/남아 구성) 형제간 동료의식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자녀의 경우 자매인 경우에 언니(여아/여아 구성)에게 형제간 동료의식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들은 남이들보다 형제에 대해 좀더 온정적이고, 애정적이므로 자매간에 동료의식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형제간 동료의식에 있어서의 출생순위와 연령터울의 상호작용은 장자녀인 경우 형제간 연령터울이 5년일 때 형제간 동료의식을 가장 많이 느꼈고, 차자녀인 경우 형제간 연령터울이 1년일 때 형제간 동료의식을 가장 많이 느꼈기 때문이다.

형제간 동료의식에 출생순위와 연령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장자녀인 경우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2학년사이에 형제간 동료의식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소 감소하였으나, 차자녀인 경우에 중학교 2학년때 형제간 동료의식이 감소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끝으로 형제간 동료의식에 있어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이는 남아인 경우에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이 가장 높게 느껴 연령이 올라갈수록 형제간 동료의식을 많이 지각하였고 반면 여아인 경우 중학교 2학년 때 형제간 동료의식이 증가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령, 성별 및 형제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관계

연령, 성별, 형제자매 구조에 따라 또래관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하였다. 표 4에서 주효과와 이원상호작용효과 중에서 유의미한 것만 제시하고자 한다.

표4. 연령, 성별, 형제자매구조에 따른 또래관계의 변량분석

또래관계차원	자유도	평균 자승	F값
지도성			
출생순위×성별구성	3	36.60	3.98**
경쟁심			
출생순위×연령터울	3	34.88	3.56*
성 × 학 년	2	35.35	3.59*
적대감			
연령	2	30.23	3.59*
자신감			
성	1	79.85	6.88***
출생순위×성별구성	3	36.46	7.63***
교사에 대한 애정			
출생순위×성별구성	3	18.71	3.83**
성 × 학 년	2	45.02	9.34***

* $p < .05$ ** $p < .01$ *** $p < .001$

또래간 지도성은 출생순위와 형제간 성별구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는데 장자녀의 경우 남아/여아의 형제간 성별구성일 때 지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차자녀의 경우 자매간일 때 지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간 경쟁심은 출생순위와 형제간 연

령터울의 상호작용을 보였는데, 장자녀의 경우 아랫 형제와 연령터울이 5년이상일 때 또래간에 경쟁심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차자녀인 경우 윗형제와 연령터울이 3-4년일 때 또래관계에서 경쟁심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남아의 경우 또래간 경쟁심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감소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 연령이 올라갈수록 또래간 경쟁심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감은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또래관계에서 적대감은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 가장 많이 느끼고, 그 다음이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2학년순이었다. 즉,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때는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또래관계내 자신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출생순위와 형제간 성별구성형태가 상호작용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신감은 성별의 주효과를 나타냈는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순위와 형제간 성별구성형태가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장자녀의 경우 남아/여아의 성별구성이 또래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차자녀의 경우 자매간에서 자신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애정은 출생순위와 형제간 성별구성이 상호작용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장자녀의 경우 여아/남아의 구성형태가 교사에 대한 애정을 가장 많이 느꼈다. 또한 차자녀인 경우 자매간이 교사에 대해 애정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에 대한 애정에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남아의 경우 교사에 대한 애정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때는 감소현상을 보였다. 반면 여아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사이에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때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4. 청소년의 기질과 형제관계 및 또래관계간의 상관

1) 청소년의 기질과 형제관계 및 또래관계간의 상관

청소년의 기질과 형제관계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질의 각 차원과 형제관계의 각 차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충동성과 경쟁심간의 상관(.06)만이 유의미 하지 않고 다른 모든 차원간에는 유의미한 상관(-.38~+.35)을 보이고 있었다. 각 차원간 상관에 대한 설명은 표 5로 대신하였다. 기질과 또래관계간의 상관관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 기질과 형제관계간의 상관

형제관계차원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충동성
1. 온정/친밀감	-.13**	.19***	.20***	-.29***
2. 경쟁심	.18***	-.00	-.13**	.06
3. 부모의 편애	.31***	-.10**	-.18***	.26***
4. 갈등	.35***	-.13**	-.08*	.30***
5. 보호심	-.11**	.24***	.19***	-.38***
6. 형제간 동료의식	.13**	.14**	.19***	-.25***
7. 형제간 친사회성	-.13**	.25***	.21***	-.35***

* $p < .05$ ** $p < .01$ *** $p < .001$

표 6. 기질과 또래관계간의 상관

또래관계차원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충동성
1. 지도성	-.09*	.43***	.49***	-.24***
2. 경쟁심	.28***	.18***	.02	-.00
3. 학교에서의 유능성	-.20***	.43***	.39***	.62***
4. 적대감	.48***	-.06	-.14**	.29*
5. 자신감	-.14**	.38***	.15***	-.41***
6. 교사에 대한 애정	.08*	.22***	.16***	-.14**

* $p < .05$ ** $p < .01$ *** $p < .001$

2) 청소년의 형제관계와 또래관계간의 상관

먼저 형제관계의 차원 중 온정 친밀감과 상관을 보인 또래관계의 차원들을 살펴보면 지도성, 자신감, 교사에 대한 애정은 온정/친밀감과 정적관계를 적대감은 온정/친밀감과 부적관계를 보였다. 즉 형제관계에서 온정 친밀감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또래관계에서 또래를 이끌어 가는 지도력이 높고 자신감이 많고 교사에 대한 애정이 많고, 또래관계내 적대감은 줄어든다.

둘째, 형제관계의 차원 중 경쟁심과 상관을 보인 또래관계의 차원들을 살펴보면 경쟁심, 적대감, 교사에 대한 애정은 경쟁심과 정적관계를 지도성은 경쟁심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즉 형제관계에서 경쟁심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또래관계에서도 경쟁심이 많고, 적대감도 높고, 교사에 대한 애정도 많고, 또래관계에서의 지도성은 떨어진다.

셋째, 형제관계에서의 부모의 편애와 상관을 보인 또래관계 차원을 살펴보면 지도성, 학교에서의 유능성, 자신감은 부모의 편애와 부적관계를 또래관계에서의 경쟁심, 적대감, 교사에 대한 애정은 부모의 편애와 정적관계를 보였다. 즉 형제와 비교해 부모의 편애를 많이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또래관계에서 경쟁심, 적대감, 교사에 대한 애정이 많고, 또래관계에서 지도성과 학교에서의 유능성은 떨어진다.

넷째, 형제관계 차원 중 갈등과 상관을 보인 또래관계 차원은 지도성, 학교에서의 유능성, 자신감, 교사에 대한 애정은 형제간 갈등과 부적관계를 경쟁심과

적대감은 형제간 갈등과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즉 형제관계에서 갈등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또래관계에서 경쟁심과 적대감은 많아지고, 지도성, 학교에서의 유능성, 자신감, 교사에 대한 애정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형제간 보호심과 상관을 보인 또래관계 차원을 살펴보면 지도성, 학교에서의 유능성, 자신감, 교사에 대한 애정은 보호심과 정적관계를 적대감은 보호심과는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청소년이 형제관계에서 형제에 대해 보호심이 많을수록 또래관계에서 지도성, 학교에서의 유능성, 자신감, 교사에 대한 애정이 많고, 또래관계에서 적대감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형제와의 동료의식과 상관을 보인 또래관계 차원을 살펴보면, 지도성, 학교에서의 유능성, 자신감, 교사에 대한 애정은 형제간 동료의식과 정적관계를 적대감과는 부적관계를 보였다. 즉 형제간에 동료의식이 많을수록 지도성, 학교에서의 유능성, 교사에 대한 애정이 많고, 적대감은 적어진다.

마지막으로 형제간 친사회성과 상관을 보인 또래관계 차원을 살펴보면 자신감은 형제간 친사회성과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즉 형제간에 친사회성이 많을수록 또래관계에서 지도성과 자신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형제관계 및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비교

형제관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형제관계의 각 차원을 종속 변수로

표 7. 형제관계 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 변수	독립 변수	β	R^2	R^2 증가량	F 값
온정/ 친밀감	충동성(기질)	-.12	.04		22.04***
	사회성(기질)	.10	.07	.03	19.19***
	적대감(또래관계)	-.14	.08	.01	15.29***
	교사에 대한 애정(또래관계)	.12	.10	.02	13.81***
	활동성(기질)	.10	.11	.01	11.93***
경쟁심	경쟁심(또래관계)	.42	.18		116.18***
	연령	-.21	.23	.05	76.62***
	지도성(또래관계)	-.12	.25	.02	56.76***
	출생순위	.13	.26	.01	45.74***
	적대감(또래관계)	.10	.27	.01	38.18***
부모의 편애	연령타율	-.09	.28	.01	33.08***
	적대감(또래관계)	.28	.17		101.98***
	연령	-.17	.20	.03	62.07***
	경쟁심(또래관계)	.19	.22	.02	47.81***
	충동성(기질)	.16	.24	.02	41.04***
갈등	사회성(기질)	-.12	.26	.02	35.06***
	성별	.10	.27	.01	30.72***
	정서성(기질)	.20	.12		66.98***
	연령	-.23	.17	.05	50.67***
	자신감(또래관계)	.17	.19	.02	40.65***
보호심	연령타율	-.16	.22	.03	35.84***
	학교에서의 유능성(또래관계)	-.10	.24	.02	31.70***
	출생순위	-.10	.25	.01	27.44***
	충동성(기질)	.11	.25	.01	24.46***
	학교에서의 유능성(또래관계)	.20	.13		79.35***
형제간 동료의식	출생순위	-.28	.22	.09	73.24***
	충동성(기질)	-.19	.25	.03	56.40***
	교사에 대한 애정(또래관계)	.12	.27	.02	45.97***
	사회성(기질)	.11	.28	.01	38.92***
	성별	.07	.28	.00	33.27***
형제간 친사회성	충동성(기질)	-.11	.05		28.95***
	성별	.78	.08	.03	22.77***
	적대감(또래관계)	-.14	.10	.02	19.79***
	사회성(기질)	.12	.12	.02	17.61***
	자신감(또래관계)	.11	.13	.01	15.28***
형제간 친사회성	출생순위	-.09	.14	.01	13.51***
	학교에서의 유능성(또래관계)	.18	.11		63.34***
	충동성(기질)	-.22	.14	.03	42.62***
	교사에 대한 애정(또래관계)	.11	.16	.02	32.06***
	연령	.10	.17	.01	26.09***
	사회성(기질)	.10	.18	.01	22.22***

*** $p < .001$

하고 기질, 각 차원과 형제지위 변인, 또래관계 각 차원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여기서 성별은 가변수 처리된 것으로 남이는 0, 여이는 1로 하였다.

표 7에서 보면, 형제관계 각 차원을 설명하는 설명 변인은 온정감/친밀감, 갈등, 형제간 동료의식 3차원에 대해서는 기질이었으며 경쟁심, 보호심, 형제간

친사회성차원에서는 또래관계였다. 이는 가정에서 상호작용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가정밖에 일반화시키는 것처럼 가정내에서 상호작용하는 관계 중 하나인 형제관계와 가정밖에 또래관계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두 관계가 서로 영향을 있음을 말해 준다.

또래관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또래관계의 각 차원들은 종속변수로 하고 기질 각 차원과 형제지위변인, 형제

표 8. 또래관계 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 변수	독립 변수	β	R^2	R^2 증가량	F 값
지도성	사회성(기질)	.39	.26		178.06***
	활동성(기질)	.22	.31	.05	117.37***
	충동성(기질)	-.13	.34	.04	86.60***
	보호심	.08	.34	.00	67.66***
경쟁심	경쟁심(형제관계)	.37	.19		120.00***
	정서성(기질)	.18	.23	.04	74.57***
	활동성(기질)	.15	.25	.02	58.37***
	보호심(형제)	.10	.27	.02	46.48***
	부모의 편애(형제관계)	.13	.27	.00	38.41***
	형제간 동료의식(형제관계)	.09	.28	.01	32.89***
학교에서의 유능성	충동성(기질)	-.28	.23		149.93***
	활동성(기질)	.19	.29	.06	104.51***
	보호심(형제관계)	.20	.32	.03	80.49***
	정서성(기질)	-.13	.34	.02	64.80***
	사회성(기질)	.11	.35	.01	54.04***
	온정/친밀감(형제관계)	-.11	.36	.01	46.15***
	형제간 친사회성(형제관계)	-.09	.36	.00	40.50***
적대감	정서성(기질)	.41	.23		153.70***
	부모의 편애(형제관계)	.29	.30	.07	110.73***
	성별	-.14	.32	.02	80.29***
자신감	충동성(기질)	-.29	.15		91.69***
	활동성(기질)	.26	.24	.09	80.06***
	성별	-.15	.26	.02	58.97***
	보호심(형제관계)	.11	.27	.01	46.47***
교사에 대한 애정	활동성(기질)	.16	.05		26.35***
	보호심(형제관계)	.14	.08	.03	20.87***
	부모의 편애(형제관계)	.24	.10	.02	19.59***
	형제간 친사회성(형제관계)	.19	.13	.03	18.53***

*** $p < .001$

관계 각 차원은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또래관계 각 차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변인은 경쟁심을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기질이었으며 그 설명력도 26% 까지 이르러 12% 이하의 설명력을 가졌던 형제관계에의 영향보다 컸다.

결 론 및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형제관계와 또래관계를 통하여 청소년의 사회성의 발달을 비교분석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이 두 종류의 사회적 관계에 공통으로 관여되는 요인으로 기질요인을 상정하였다. 따라서 선천적인 기질을 갖는 기질의 발달과 형제간 배경요인에 따른 차이를 시작으로 하여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되지 못한 청소년기의 형제관계와 또래관계간의 역동적인 관계와 그의 발달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1. 연령,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청소년의 기질

기질 차원별로 연령, 성별 그리고 출생순위에 따라 변량 분석한 결과 1세에서 17세 사이에서 정서성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는데 연령이 높아 갈수록 두려움이나 분노의 불쾌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아는 남아보다 두려움이나 분노에 대한 불쾌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 차원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기질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영유아기의 기질에 집중되어 있고(원영미, 1987, 1989; 유명희, 박성연, 1991; 이근, 1981; 진예봉, 1993; 천희영, 1993; 최영희, 1989, 1991) 청소년기의 기질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김정민(1992)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꾸준히 연구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발달적인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횡단적인 연구이긴 하나 기질의 발달과정에 대해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별 분석의 결과는 기질의 성차를 연구한 Buss와 Plomin의 연구(1975)에서 활동성이 4세부터 남아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정서성 차원에서 여아의 경우 학령기 이후 더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청소년의 출생순위에 따라 기질특성상의 차이를 보인 차원은 사회성과 충동성이었다. 사회성, 충동성 모두 장자녀보다 차자녀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 연령, 성별 및 형제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형제 관계

본 연구에서 형제관계를 온정/친밀감, 경쟁심, 부모의 편애, 갈등, 보호심, 형제와의 동료의식, 형제에 대한 친사회성으로 구분하여 여러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자매간에서 친밀하고 우호적인 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국내외의 연구(김상희, 1982; Whiting & Whiting, 1975)와 일치한다. 경쟁심차원에서는 연령과 형제간 성별구성 및 출생순위의 주효과가 있었는데 형제간 경쟁심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으며, 성별구성에서는 형제간이 남남간(이성)이나 자매간 구성에서보다 경쟁심이 높았다. 이는 형제보다도 자매간에서 가장 심한 질투심, 경쟁의식과 공격성이 나타난다는 Mussen 등.(1979)와 Minnet(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남아의 공격성을 수용하는 점에 있어서의 문화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화를 위해 보다 많은 표집과 여러 대상을 사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경쟁심은 연령과 성별간 상호작용을 나타내, 남아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사이에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데 여아는 오히려 증가 경향을 보였다. 남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인해 경쟁의 대상도 형제 보다 또래로 넘어가는 현상으로 보인다. 부모의 편애차원에서는 성별과 연령의 주효과가 있

었는데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부모의 편애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연령이 증가 할수록 부모의 편애를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부모의 편애를 높게 지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연령에 따라 부모의 편애를 적게 느끼는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적어짐으로 인해 형제와 비교해 편애를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덜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차원에서는 성별구성과 출생순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는데, 즉 장자녀의 경우 자매구성(여.여)일 때 편애를 가장 높게 느끼나, 차자녀의 경우의 형제구성(남.남)의 경우에는 가장 부모편애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장자녀의 경우 자매간에서 부모의 편애를 많이 느끼는 것은 부모가 자매간이면서 차자녀에게 보다 온정적, 보호적, 관여적으로 행동한다는 Bryant와 Crockenberg(1980)의 연구결과처럼, 부모는 차자녀에 대한 보호적인 행동으로 인해 자매간이면서 장녀인 경우 부모의 편애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갈등차원에서는 연령, 형제간 성별구성, 형제간 연령터울에서 주효과를 나타내었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형제자매간 갈등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장 많이 느끼며, 고등학교 2학년때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발달적인 변화와 일치하고 있다(Buhrmester & Furman, 1990). 연령이 높아질수록 형제에 대해 갈등과 싸움이 많이 줄어들고 형제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는 현상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형제간 성별구성은 자매간 구성에서 다른 경우보다 높은 갈등을 연구(김상희, 1982; Whiting & Whiting, 1975)와 일치한다. 경쟁심차원에서는 연령과 형제간 성별구성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제간 연령터울은 2년차에서 가장 높은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의 싸움이나 갈등은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쉽게

일어난다고 볼 때(유영주, 1984), 아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형제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래간 상호작용이 늘어남으로 인해 형제간 갈등 또한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형제간 연령터울이 적을수록 형제가 공유하는 공간이나 사물, 흥미 등이 많아, 형제간 상호작용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형제간 갈등도 많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갈등차원에서 출생순위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있어 남아의 경우 차자일 때 높은 갈등을 보고하는 반면 여아는 장자일 때 높은 갈등을 보고하였다.

보호심차원에서는 출생순위와 성별에서 주효과를 보였는데 장자녀가 보호심이 높고,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은 보호심을 보고하였다. 여아가 형제자매에 대해 온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Abramovitch와 그외(1972), Cicirelli(1972), Dunn(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장자녀는 동생들을 보살피주어야 하며 여아는 온정적이며 보호적이어야 한다는 주변의 역할기대와 학습의 결과로 볼 수 있다(한미현, 1989). 출생순위와 성별구성간, 출생순위와 연령터울간, 출생순위와 연령, 성별과 성별구성간에 2원 상호작용이 또한 보였다. 출생순위와 성별구성에 따라 형제간 보호심은 장자녀의 경우 누나/동생의 성별구성을 가졌을 때 높았고, 차자녀의 경우 자매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와 연령터울에 따른 형제간 보호심은 장자녀이 장자녀의 경우 연령터울이 5년일 때, 차자녀의 경우 연령터울이 1년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와 연령에 따른 보호심은 장자녀인 경우, 중학교 2학년 때 다소 증가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감소현상을 보인 반면, 차자녀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때 감소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증가현상을 보였다.

형제간 동료의식차원에서는 출생순위와 성별구성간, 출생순위와 연령터울간, 출생순위와 연령간, 성별과 연령간에 2원 상호작용 효과만 있었다. 출생순위와 성별구성에 따라 형제간 동료의식은 장자녀의 경우 여아가 남동생을 가졌을 때 가장 높았던 반면 차

자녀의 경우 자매간 구성일 때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와 연령터울에 따라 형제간 동료의식은 장자녀의 경우 연령터울이 5년이상일 때 가장 높게 지각한 반면, 차자녀의 경우 연령터울이 1년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와 연령에 따라 형제간 동료의식은 장자녀인 경우 연령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차자녀의 경우 연령에 따라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성과 연령에 따라 형제간 동료의식은 남아의 경우,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여아의 경우 연령에 따라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 현상을 보였다.

형제간 친사회성 차원에서는 연령, 성별, 형제자매 구조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연령, 성별 및 형제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 관계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각 차원을 연령, 성별 그리고 형제자매구조(성별, 출생순위, 형제간 성별구성, 형제간 연령터울)에 따라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또래관계의 지도성차원에서는 출생순위와 성별구성의 상호작용 효과만이 유의하여, 장자녀의 경우 여동생을 둔 남아가 지도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차자녀의 경우 자매간일 때, 지도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경쟁심차원에서는 출생순위와 연령터울간, 성과 연령간 상호작용효과만 있었다. 출생순위와 연령터울에 따라 또래간 경쟁심은 장자녀의 경우 연령터울이 5년 이상일 때, 차자녀의 경우 연령터울이 3-4년일 때 가장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성과 연령에 따라 또래간 경쟁심은 남아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여아의 경우 연령이 올라갈수록 경쟁심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감차원에서는 연령에 따른 주효과만 있어, 적

대감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 현상을 보였다.

자신감차원에서는 성에 따른 주효과와 출생순위와 성별구성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성에 따라 자신감은 차이가 있었는데, 여아보다 남아가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와 성별구성에 따라 자신감은 장자녀의 경우 여동생을 둔 남아가 차자녀는 자매간에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애정차원에서는 출생순위와 성별구성간, 성과 연령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출생순위와 성별구성에 따라 교사에 대한 애정은 장자녀의 경우 남동생을 둔 여아가 가장 많이 느꼈으며, 차자녀의 경우 자매간에서 교사에 대한 애정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 연령에 따라 교사에 대한 애정은 남아의 경우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현상을 보였던 반면, 여아의 경우 연령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의 기질, 형제관계 및 또래관계간의 상관

청소년의 기질, 형제관계 및 또래관계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각각의 변인간의 상관을 차례대로 분석하였다. 또한 형제관계와 또래관계에서 기질, 성별, 연령, 형제자매구조(출생순위, 연령차이, 성별구성 등)를 독립변인으로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그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청소년의 기질의 각 차원과 형제관계의 각 차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기질과 형제관계는 대체로 낮지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기질의 긍정적인 차원(활동성, 사회성)은 형제관계의 긍정적 차원과는 정적관계를 부정적 차원과는 부정관계를 보이고, 기질의 부정적 차원(정서성, 충동성)은 형제관계의 긍정적 차원과는 부정관계를 부정적

차원과는 정적관계를 보였다.

청소년 기질과 또래관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질의 각 차원과 형제관계의 각 차원을 상관관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고, 형제관계보다는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형제관계와 또래관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과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성의 두 측면인 형제관계와 또래 관계의 관련성은 가정에서 상호작용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가정밖에서도 일반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며 두 관계가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음을 말해 준다.

마지막으로 형제관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형제관계의 각 차원을 종속 변수로 하고 기질, 각 차원과 형제지위 변인, 또래관계 각 차원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체로 형제관계를 가장 크게 설명하고 있는 변인은 기질과 또래관계가 거의 유사하였다.

반면에 또래관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또래관계의 각 차원들은 종속변수로 하고 기질 각 차원과 형제지위 변인 등과 형제관계 각 차원은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또래관계의 각 차원을 가장 설명하는 변인은 경쟁심을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기질차원이었다.

이상에서 형제관계에서 보다는 또래관계에서 기질의 영향이 더욱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표 7과 8을 비교해 볼 때에도 기질과 형제관계의 상관계수보다도 기질과 또래관계의 상관계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형제관계가 또래관계보다 일찍이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질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제관계는 또래관계보다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형제관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형제가 한 가정속에서 받는 환경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에 집중되고 있다(Daniels et al., 1985). 이는 이제까지 자녀의 가정환경을 논의할 때 한가지 환경으로 규정지어왔던 것에서 벗어나 특정한 가족내이기 때문에 더욱 차별적인 것으로 지각되고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차별적인 훈육, 양육 태도를 강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아동은 가정에서 동일한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사회적인 환경인 부모의 관여를 크게 받는다는 것이고 형제관계 또한 부모의 관여와 상호작용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타고난 기질의 영향이 뚜렷하지 못하고 복잡한 양상을 띄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에 또래관계는 오히려 부모의 관여와는 별도로 아동이 동등한 사회관계속에서 기질의 영향이 비교적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 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보다 넓은 범위의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형제관계와 또래관계에 기질이 미치는 영향과 기질과 두 사회적 관계의 상관이 발달적으로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의있을 것이다. Scarr & McCartney (1988)은 유전적인 특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에 적절한 환경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발달초기보다도 후기에 있어 오히려 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질과 형제관계간의 상관이나 또래관계간의 상관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명이상의 형제를 둔 아동의 역동적 형제관계와 또래관계간의 상관과 이에 미치는 기질의 영향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결과의 일반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또래관계와 형제관계의 문제양상에서 다른 적응적인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지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겠다. 예로 비행청소년의 형제관계와 또래관계의 특성과 이들간 상관양상이 일반 청소년의 그것과 같은지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비행집단의 가족 유형, 부모 관계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 졌으나 이들

의 형제관계와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1987).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말경(1996). 아동의 학업성취와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모델과 조화 적합성 모델비교.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희(1982). 학령전 아동의 형제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희(1989). 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인구학적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순(1973). 형제자매의 유무와 개인의 성격적 욕구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1992). 청소년기 기질 적합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영선(1991). 유아의 기질에 따른 놀이 영역 선택 및 놀이 형태 -4세아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근(1981). 영아기 기질에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원영미(1989).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유명희(1990). 온순한 유아와 까다로운 유아의 울음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반응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명희, 박성연(1991). 온순한 유아와 까다로운 유아의 울음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반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2(2), 173-191.
- 유영주(1984). 신가족관계학. 서울:교문사.
- 이춘재 외(1988). 청년심리학. 중앙적성 출판사.
- 정은숙(1984). 아동의 기질과 인기도 및 양육태도

-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예봉(1993). 부모가 지각하는 아동의 기질과 자녀 만족도 수준 및 상호관계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천희영(1993 a).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연구*, 제2집, 19-31.
- 천희영(1993 b). 한국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최영희(1989). 기질특정의 타당성 조사연구. 숙명여대학교. 원우논총. 제 7집, 63-79.
- 최영희(199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불안정도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논문집. 제 10집, 175-187.
- 최주영(1976). 형제관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89). 형제자매구조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행동에 따른 형제자매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ramovitch, R., Corter, C., & Lando, B. (1979). Sibling Interaction in the home. *Child Development*, 50, 997-1003.
- Abramovitch, R., Pepler, D., & Corter C. (1982). Patterns of sibling interaction among preschool-age children. In M. E. Lamb & B. Sutton-Smith(Eds.), *Sibling relationships: Their nature and significance across the lifespa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Abramovitch, R., Corter, C., Pepler, D. J., & Stanhope, L.(1986). Sibling & Peer I interaction :A final Follow-up & A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7, 217-229.
- Adler, T. F., & Furman, W.(1988). A model for children's relationships and relationship dysfunction. In S.Duck(Ed.),

-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N.Y. : John Wiley & Sons.
- Allport, G. W.(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Holt, Reinhart and Winston). p.34.
- Baskett, L.M. & Johnson, S.M.(1982). The Young Child's Interactions with Parents versus Siblings: Behavior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3, 643-602.
- Bates, J. E. (1989). Concepts and Measures of Temperament. In G. A. Kohnstamm, J. E. Bates and M. K. Rothbart(Eds.), Temperament in childhood, 3-26.
- Berndt, T. J. & Bullett T. N.(1985). Effect of Sibling Relationships on Preschools' Behavior at Home and at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1, no. 5, 761-767.
- Bowerman, C. E., & Dobash, R. M.(1974). Structural Variations in inter-sibling affe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48-54.
- Brody, G. H., Stoneman, Z., & Mackinnon, C. E.(1982). Role Asymmetries in Interaction among School-Aged Children, Their Younger Siblings, and Their Friends. *Child Development*, 53, 1364-1370.
- Brody, G. H., Stoneman, Z., MacKinnon, C., & MacKinnon, R. (1985). Role relationships and behavior between preschool-aged and school-aged sibling pair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24-129.
- Bryant, B. & Crockenberg, S. (1980). Correlate & dimensions of prosocial behavior. A study of female sibling with their mother *Child Development*, 51(2), 529-544
- Buhrmester, D. & Furman, W.(1990) Perceptions of sibling relationship during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5), 1387-139
- Buss, A.H., & Plomin, R.(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Y: Wiley.
- Buss, A., & Plomin(1986). The EAS approach to temperament.
- In R. Plomin, & J. Campos, J. J., Barrett, K. C., Lamb, M. E., Goldsmith, H. H., and Stenberg, C. (1983). "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M. M. Haith and J. J. Campos(Eds.), P. 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 Infancy and Developmental Psychobiology, New York: Wiley.
- Cicirelli, V. G. (1972). The effect of the sibling relationship on concept learning of young children taught by child teachers. *Child Development*, 43, 282-287.
- Cicirelli, V. G.(1973). Effect of sibling structural and interaction on children's categorization style. *Developmental Psychology*, 9, 131-139.
- Cicirelli, V. G. (1985). Sibling relationships throughout the life cycle. In A. S. Gurman (Ed.), The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Illinois: The Dorsey Press.
- Daniels, D., & Plomin, R. (1985). Differential experience of siblings in the same famil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747-760.
- Daniels, D., Dunn, J., Furstenberg, F., & Plomin, R (1985). Environmental Differences within the Family and Adjustment Differences within Pairs of Adolescent

- Siblings. *Child Development*, 56, 764-774.
- Damon, W. (1989). *Child Development Today and Tomorrow*. Jossey-Bass Inc.
- Derryberry, D., & Rothbart, M. K.(1984). "Emotion, Attention, and Temperament," In C. E. Izard, J. Kagan, and R. Zajonc(Eds.),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nn, J. & Kendrick, C. (1981). Interaction between young siblings : Association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first-born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36-343.
- Dunn, J. & Kendrick, C. (1981). Social Behavior of Young Siblings in the Family Context : Difference Between Same-sex and Different-sex Dyads. *Child Development*, 52, 1265-1273.
- Dunn, J. (1982). *Siblings : Love, envy and understanding*.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Dunn(Eds.). (1986)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 Hillsdale, NJ: Erlbaum.
- Dunn, J. (1983).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4, 787-811.
- Lamb, M. (1978). Interactions between 18-month-olds and their preschool-aged siblings. *Child Development*, 49, 51-59.
- Knight G.P.(1982). Cooperative-Competitive Social Orientation : Interaction of Birth Order Sex & Economic Class. *Child Development*, 53, 664-667.
- Lamb, M. E., Hwang, C. P., Brookstein, F. L., Broberg, A., Hult, G., & Flodi, M.(1988). Determinants of social competence in Swedish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58-70.
- Millioner, J(1978).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hild temperament an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49, 1255-1257.
- Minnet, A.M., Vandell, D.L., & Santrock, J.W.(1983). The Effect on Sibling Status on Sibling Interaction : Influence of Birth Order, Age Spacing, Sex of Child, and Sex of Sibling. *Child Development*, 54, 1064-1072.
- Mussen, P. H., Conger, J. J., & Kagan, J. (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Y. : Harper International Ed.
- Parke, R. D., & Ladd, G.(1992) (Eds.) *Family peer relationship: modes of linkage* Hillsdale, NJ: Erlbaum.
- Rothbart, M. K.(1986). Longitudinal observation of infant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56-365.
- Rubin, K. H. & Ross, H. S. Ed.(1982). *Peer Relation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 New York: Springer-Verlag.
- Samuels, H.R.(1980). The Effect of an older sibling on infant locomoter exploration of a new environment. *Child Development*, 51, 607-609.
- Scarr, S., & Grajek, S.(1982).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siblings. In M. Lamb & B. Sutton-Smith(Eds.). *Sibling. relationships: Their nature and significance across the lifespan*. Hillsdale. N. Y.:Erlbaum.
- Scarr, S. & McCartney, K.(1988). How people make their own environment: A theory of genotype->Environment effects.

- In E. Hetherington, & R. Parke(Eds.),
Contemporary readings in child psychology.
New York:McGraw Hill.
- Schölm, A., Zucker, R. A., Stollak, G. E.
(1979). Relating early child adjustment to
infant and parent Tempera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7, 297-308.
- Stewart, R. B. (1983). Sibling interaction :
The role of the older child as teacher for
the younger. *Merrill-Palmer Quarterly*, 29,
47-68.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Brunner.
- Whiting, B. B., & Whiting, J.(1975). Children
of six cultures: A Psychocultural analysi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SIBLING- AND PEER-RELATIONSHIPS IN RELATION TO TEMPERAMENT IN KOREAN ADOLESCENTS

Hyewon Park Choi & Eunji Kim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 of Ulsan

This study looked at overlaps between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in relation to their common mediator of temperament and family constellation status. Temperament has been conceptualized as the initial bias for behavioral qualities of emotion, attention and activities. Even though temperament has been closely analyzed in terms of parent-child interaction, and early social adjustment in daycare settings, its contribution to other social relationship among siblings and peers was not fully understood.

Six hundred and thirty four adolescents composed of 213 sixth, 192 eighth and 229 eleventh graders who had only one sibling, reported their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as well as temperament. For questionnaires used, satisfactory reliabilities were verified by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 alpha.

In order to find out the interrelations among temperament and the two social relationships, correlational as well as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here were significant but moderately low correlations(-.22 to .43) between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Temperament explained both sibling relationships and peer relationships significantly. Contradictory to ordinary expectations, however, it was the better predictor of peer relationships(R^2 ranges from .05 to .34) than that of sibling relationships(R^2 ranges from .08 to .25). It was speculated that temperament explained peer relationships better than sibling relationships since sibling relationships are moderated by other familial factors such as parental partiality for sibling. Later studies will be necessary to verify this possibility.

Key words: Temperament · sibling · relationships · peer relationships